한국여성재단
KOREA FOUNDATION FOR WOMEN

딸들에게 희망을

2016. 2호 www.womenfund.or.kr

기획
나의 이웃집에는 누가누가 사나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광희 디자이너,
그가 남수단에 희망을 심기까지

작지만
그 존재감은 대단했다

최근에 전자책을 보려고 이북(e-book)리더기 하나를 구입했다. 아직 전자책이 종이책에 비해 적어 찾는 책이 없을 때가 많지만, 많은 수의 책을 저장하여 언제든 가지고 다닐 수 있고 꺼내 볼 수 있어 참 좋다.

특히 여행이나 출장을 갈 때면 진가가 톡톡히 발휘된다. 내가 구입한 이북리더기는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이어서 화면도 선명하고 무엇보다 가볍다. 매우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었는데, 뭔가 2%가 아쉬웠다. 한손으로 딱 잡기에 애매한 크기여서 자세가 잘 나오지 않았다. 손에 딱 잡히지 않으니 자칫 잘못하면 손에서 놓칠 염려도 있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갖은 방법을 다 시도해 보았지만 그 불편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난 그 불편함을 완전히 해소했다. 손가락을 걸 수 있는 고리같이 생긴 조그마한 물건을 이북리더기 뒤편에 부착했다. 손가락 하나 쓰윽 걸었을 뿐인데 손에 착 감긴 느낌이 참 편했다. 부족했던 2%가 완전히 채워졌다.

며칠 전 아내와 함께 속초로 봄맞이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왔다. 차안에서 이런 저런 밀린 얘기도 하고 준비한 간식도 먹고 미시령 고개위에 펼쳐진 멋진 풍경도 감상했다. 차안에서 주된 대화는 단연 '뭐 먹지?'였다. 오징어순대, 물회, 산낙지, 새우튀김, 닭강정…. 수많은 먹을거리를 다 이기고 낙점된 음식은 바로 '홍게찜과 홍게라면'이었다. 드디어 맛집 검색과 지인 찬스를 이용하여 속초에서 최고로 맛있는 홍게 음식점을 찾았다. 다른 음식점은 가보지 않았으니 단연 아직까지 최고다. 주문을 하고 초조하게 기다렸다. 먹음직스러운 홍게가 나왔고, 정말 게눈 감추듯 먹기 시작했다. 맛있게 먹는 도중에 게껍질이 이 사이에 끼였다. 손가락으로도 이쑤시개로도 혓바닥을 곧추세워 밀어보아도 빠지지 않았다.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게껍질은 홍게를 다 먹고 난후 껌을 씹다가 툭하고 빠졌다. 그 때 그 시원함은 세상을 모두 가진 기분이었다.

이북리더기를 편하게 만들어 줬던 작은 물건 하나, 이 사이에 낀 아주 작은 게껍질처럼 작지만 그 존재감이 대단한 것들이 있다. 한국여성재단은 매년 100인 기부릴레이를 펼치고 있다. 올해도 곧 시작된다. 작지만 대단한 존재감을 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고 있는 것이다. W

방대욱 한국여성재단 기획홍보위원, 다음세대재단 대표

딸들에게 희망을 2016. 2호

나눔캠페인 100인 기부릴레이의 꽃 이끔이 7인방이 밝히는 "내가 생각하는 이끔이란"
(사진: 김신, 재능나눔)

후원
농협 369-17-055283
국민 079-01-0405-971(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www.womenfund.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kwomenfund

트위터
twitter.com/womenfund

해피로그
happylog.naver.com/womenfund.do

Contents

02 **사립문 | 작지만 그 존재감은 대단했다**
방대욱 한국여성재단 기획홍보위원, 다음세대재단 대표

04 **기획 | 나의 이웃집에는 누가누가 사나**
한부모라는 인생의 무대
1인 가구 밥상 차려주는 여자
신자본주의 시대, 다시 3대가 사는 이유

10 **이슈와 현장 | 드나듦에 차별이 없는곳 카페 별꼴**

12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광희 디자이너, 그가 남수단에 희망을 심기까지
누가 뭐래도 이끔이가 꽃보다 아름답다

16 **여성단체와 함께 뛴다 | 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
다시 열리는 페미니즘 미디어아티비스트 비엔날레 2016

18 **소식**
재단활동
기부자명단
수입과 지출

23 **100인 기부릴레이 2016 우리는 함께가는 친구입니다.**

딸들에게 희망을 2016. 2호 **발행인** 이혜경 이사장 **편집인** 박기남 사무총장 **기획편집** 기획홍보팀 **발행일** 2016년 3월 25일
등록번호 마포마00061 **발행처** (재)한국여성재단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북로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전화 02-336-6364 **팩스** 02-336-6459 **디자인** 그래픽오션

나의 이웃집에는 누가누가 사나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4인 가구가 아닌 저마다 자기만의 가족과 라이프스타일을 가지게 되었다. 아주 아주 예전, 부모를 봉양하며 살았던 가족은 아이의 양육을 위해 다시 대가족을 이루고, 1인 가구의 끼니를 챙겨주는 1인 독립생활자도 있다.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들 역시 커뮤니티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기도 하고 무대위의 배우가 되기도 했다. 세 명의 여성에게 듣는 오늘 하루. 당신의 이웃집에는 누가 사나요?

한부모라는 인생의 무대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한국여성대회가 열리는 날. 비가 내렸다. 우산을 쓴 연지님과 다섯 살 다연이는 오늘 행사를 맞아 광화문을 찾았다. 연지님은 미혼모단체 인트리(人tree)에서 활동하며 처음 경험해보는 일이 많이 생겼다고 했다.

연지님은 주중은 직장일로 주말에는 대부분 인트리(人tree)에서 활동한다. 혼자 아이를 낳았지만 부모님과 동생이 다연이의 육아를 돕는다. 일이 끝나고 다연이를 데리러 가는 시간은 저녁 일곱시를 넘길 때가 많아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에게 미안함이 없지 않다. 하지만 처음 인트리에서 활동을 시작한 것도 다연이가 이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주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그러던 차에 우리의 이야기를 무대에 올려보자는 얘기들이 흘러나왔고 급기야 여성재단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연지님을 비롯해 5명에게 곧 크나큰 시련이 닥쳤다. 여자가 아이를 낳은 건 특별하지 않은데 혼자 낳다보니 특별하게 되었다는 〈특별하지 않은 여자들의 특별한 이야기〉는 시작부터 험난했다.

무대에 선 소감을 묻자 연지님은 고개를 저으며 "사실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잘 안나요. 앞에 나가는 것도 싫어할 뿐만 아니라 나가본 적도 없었거든요." 그는 발성과 목소리를 키우는 일, 연습할 공간을 물색하는 일, 대부분 직장을 다니는지라 대본 외울 시간이 턱없이 모자라 다른 배우들과 대사를 주고받을 수가 없었다. 대사를 외워야 연기가 되는데 까마득하게 첩첩산중이었다.

"음 그런데, 재미는 있었어요. 연습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걸 느꼈죠. 연습을 하니까 위기상황이 생겨도 어떻게든 유연하게 대처하게 되더라구요."

인터뷰 중에도 다연이의 말을 들어주고 챙기는 연지님은 한편으로 공연 날이 과연 오기는 할까 조급함과 우리 얘기를 관객들이 많이 공감해줄까 하는 걱정이 생기기도 했다. 연극을 하는 우리도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그 당시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정식 배우가 아닌 우리가 그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었다.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걸 보니 제대로 연극을 하긴 한 것 같다고 웃어넘긴다.

신기한 건 11월22일 연극을 올리는 공연날 아침부터 연지님은 정체모를 슬픔을 느꼈다. 우는 장면이 아닌데도 울음이 쏟아졌고 두 번의 공연을 마친 후에는 한마디로 시원섭섭했다. 함께 했던 회원들도 이 공연을 해낸 걸 신기해하면서도 뿌듯해했다. 대사를 틀렸다는 등 배우의 면모를 드러내기도 했다. 누가 뭐래도 이 날 하루만큼은 모두 멋진 배우였다. 연지님은 한부모라는 인생의 무대에서 오늘도 비오는 광화문 거리를 다연이와 함께 씩씩하게 걸어갔다. WW

1인 가구
밥상 차려주는 여자

온종일 TV는 요리를 한다. 재료들은 화려하게 부활하여 먹음직스런 음식으로 탄생하지만 1인 독립생활자들은 감히 시도하기가 부담스럽다. 한 끼를 위해 사다 놓은 재료들은 이미 냉장고안에서 운명을 다하는 중이고 나 혼자 먹자고 뭔가를 감행하기는 너무 피곤하다. 같은 처지의 차해영님이 이들을 위한 따뜻한 주문식 밥집 〈우야식당〉을 개업했다.

해영님은 스무 살부터 1인 가구로 학교 공부며, 일, 노는 것도 대부분 집밖이다보니 밥도 대부분 바깥에서 사먹었다. 집은 그냥 잠자는 곳일 뿐이었다. "따뜻한 집밥이 그리웠지만 요리를 할 시간이 없어서 대부분 매식을 했어요. 하지만 월급에 비해 밥값은 늘 비싸다고 생각했죠."

우리 집에 와서 밥먹자

미디어활동가로 일하는 해영님이 마포구로 이사온 건 2년 전, 다행히 일하는 직장도 가깝고 집은 부엌과 붙은 마루가 꽤 넓었다. 매달 들어가는 월세의 부담도 줄일 겸 잠자는 방과 작업실을 제외한 이곳을 회의도 하고 직접 만든 요리도 먹는 편안한 공간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했다.

주로 같이 활동하는 친구들, 직원들, 친구 통해 알게 된 사람들, 행사 때 만나 알게 된 사람들이 주로 밥상을 주문했다. 마침 여성재단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이 일을 더 즐겁게 하게 되었다. 한 사람만을 위한 특별한 음식을 만들고 그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는 일은 해영님에게도 역시 감동이었다. 이 일은 알음알음 알려져 급기야는 생일상 주문을 받기도 했다. 혼자 살다보면 자신만의 기념일을 챙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해영님은 흔쾌히 생일상 요리도 했다. 40여명이 먹는 음식주문 출장들이 이어졌다. 요리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즐긴다는 그는 이 일을 하면서 1인 가구의 먹거리에 더욱 관심이 쏟게 되었다. 급기야 그는 직접 방문해 아무말 없이 두어 시간을 냉장고 청소를 하기도 했다. 그렇게 청소한 냉장고안 식재료를 꺼내 요리도 하고 먹거리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되었다.

1인 가구의 냉장고를 부탁해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 기억하세요? 사실 우리는 어제 오늘 무엇을 먹었는지도 기억을 잘 못해요. 이미 1인 가구의 주거를 고민하는 곳은 있는데 먹거리는 아직 통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인 가구의 건강한 한 끼의 표준지표를 만들어보기로 했어요." 1인 가구는 하루에 평균 몇 끼를 먹는지, 사서 먹는지 만들어먹는지, 한 끼 사먹는 식사비용은 어느 정도면 적당한지 등등의 설문과 무엇을 먹는지를 2주 정도의 식생활 일지를 작성해서 데이터화하기로 했다. 이 설문과 일지가 정리되면 서울시에 1인 가구 식생활과 개선 방안 등을 제안 할 계획이다.

연구사업을 좀 더 장기적으로 할 필요가 생기자, 망원시장 상인회 대표를 무작정 찾아갔다. 우선 밥상 마련을 위해 식재료를 싸게 구입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상인회 대표님이 오히려 망원시장안에서 우야식당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주었다.

그는 3월부터 망원시장에 매월 2,4주 수요일 저녁 7시반부터 두 시간 동안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다. 〈우야식당〉은 15분만에 쉽고 빠르고 간단하고 맛있게 만드는 〈원스탑원팬〉 냉장고안 속재료로 만드는 〈속보이는 냉장고〉 밥도둑 반찬요리교실 〈밥도둑잡기〉, 셰프의 비밀레시피 전수까지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다.

인터뷰 요청을 했을 때도 그는 자신의 집으로 와서 밥을 먹자고 했다. 고등어조림과 밑반찬, 옛날 과자 등이 올라간 밥상을 앞에 두고 얘기를 하니 금방 그의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었다. 한 끼의 밥이 주는 푸근함과 넉넉함이 오고가는 밥상의 기회를 많은 1인 가구들이 갖기를 바라며 해영님의 1인 가구 먹거리 프로젝트의 성공을 빈다. W

신자본주의 시대, 다시 3대가 사는이유

핵가족 시대가 열렸다곤 하지만 우리 할머니들의 라이프스타일은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결혼 전에는 부모님을 돌보고 결혼 후에는 남편과 아이들을, 지금은 손주까지 돌보게 되었다. 그래서 손주돌봄을 위해 고향집을 떠나오는 만만치 않은 노동의 연속이다. 돌보던 손주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는 주선자님(60세)을 만나보았다.(편집자주)

"아침 다섯 시 반이나 여섯 시면 눈이 떠져요. 직장 다니는 딸은 조금 더 자라고 두고 일곱 시가 넘어서야 여덟 살 민재와 다섯 살 민성이 두 손주와 딸을 깨우죠. 밥 먹여 어린이집도 보내야하니까. 그래도 우리 딸은 직장이 가까워서 그나마 다행이지요."

퇴근만이라도 제 시간에

해외에 자주 나가는 사위의 간곡한 부탁과 어린 손주들이 어린이집에서 돌아왔는데 아무도 반겨주는 이가 없는 것보다는 나을 거 같아 함께 살게 됐다. 4년을 같이 살다보니 딸도 마음 놓고 직장생활을 하는 것 같고 아이들이 돌아오는 오후까지는 짬짬이 성경공부도 하고 텃밭도 가꾸는 여유가 있다. 하지만 딱 그때까지다. 아이들이 돌아오면 다시 긴장모드다. "안전이 제일 걱정이에요. 사고날까봐. 손주 돌본 공 없다고 하잖아요." 주선자님은 딸자식 키울 때보다도 더 애틋하다고 한다. 하지만 딸 부부가 아이들과 함께 충분히 함께 하는 시간조차 가지지 못하는 것 역시 안타깝다. "아이들 한참 재롱피울 때인데 일하느라 그런 즐거움도 많이 없잖아요. 사위도 해외 생활을 자주 하니까. 놀러가서 찍은 사진 속에 사위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딸 부부가 다니는 회사에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우선은 딸이 야근 안하고 퇴근만이라도 제때 하면 좋겠어요. 거의 매일 언제 오냐고 묻는 게 다반사에요. 그리고 사위는 해외생활을 오래 하니까 아이들과 정붙일 시간이 많이 없어서 안타까워요. 그런 점을 고려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하소연도 금새 딸과 사위에게까지 섭섭한 마음이 번졌다. "주말에 텃밭을 가게 되면 반찬을 가득 냉장고에 넣어두고 가는데도 인스턴트를 사줘요. 몸에 좋지도 않은데. 사위는 오랜 해외생활로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데 아이들 버릇을 위해 엄하게 대하는 모습이 안쓰러워요. 엄하게 하는 건 늘 옆에 있는 저나 딸애가 할테니 사위는 친근하고 정답게 대해주면 좋겠어요." 반갑게도 최근 사위는 국내 현장으로 발령이 났다고 한다.

돌봄을 기대하기 너무 힘든 사회

"우리 사회가 뭐든 믿고 맡기기 어려운 사회잖아요. 심심찮게 뉴스에 나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 누가 마음 놓고 맡기겠어요? 양육과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부부에게는 더 세심한 배려도 필요한데 그것까지 바라는 건 더 어려운 세상이에요." 아이를 키우기 너무 어려운 시대, 그 틈에 노인들도 걱정이 한가득이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은 건강하지만 치매처럼 돌봄이 필요한 병에 걸리면 걱정이잖아요. 자식들의 돌봄을 받아야하는데 얘들이 아이 키우고 직장생활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걸보면 저 역시 자식들에게 짐이 될 거잖아요." 이상하게 끼인 세대 같다고도 말한다.

"제가 젊을 때는 부모님 봉양이 당연한 거였는데 저는 아이들에게 부모봉양 하라고 교육하지 않았어요. 아마 우리 세대들의 공통된 점이겠죠. 부모 걱정안하고 알아서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컸어요. 그러니 저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다니게 된 발효학교, 도시농업학교는 제2의 인생을 위해 꾸준히 준비해온 것들이다. 발효를 공부해서 장을 담가 팔거나 배추를 재배해서 파는 등 만만치 않은 계획이 서 있다.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나라가 돌봐줄 거라고는 생각 안해요. 자식에게도 나라에도 피해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손주 돌보는 일을 돈으로 환산해본 적 없어요. 돈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돈 받을 거면 엄청 많이 받아야할걸요. 딸 부부가 마음 놓고 양육하기 힘들어하니까 하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지면 하라고 해도 안하죠." 주선자님은 당장 딸아이가 일을 관두면 좋겠다고 하시지만 딸이 원하는 만큼까지는 또 손주 돌봄을 계속할 것이다.

마침 점심시간에 집에 온 딸과 마주 앉았다. "엄마에게는 늘 미안해요.", "그냥 늘 안쓰럽죠. 고생하니까, 좀 쉬라고 하고 싶죠." 서로에게 건넨 말 한마디에 뭉클함이 함께 전해온다. 시간이 지나면 여전히 큰소리와 잔소리로 가득할테지만 말이다. WW

드나듦에 차별이 없는 곳 카페 별꼴

지하철 6호선 월곡역 근처에 카페 별꼴이 있다. 이곳 매니저 유선님은 올해 한국여성재단의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 유선님이 직접 카페도 소개하고 올해 계획하는 워크숍도 설명해주었다.(편집자주)

카페 안은 낮은 조명에 빼곡히 쌓인 다양한 책들과 음악이 흐른다. 늘 마시는 동네 카페와 다르지 않은 거 같다. 카페 별꼴이 다른 점은?

생긴 지는 5년 정도 됐어요. 이곳으로 온지는 3년이 되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문화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휠체어 장애인들이 편하게 차를 마시러올 수도 있게 1층에 자리하고 지하철 엘리베이터도 있으면서 월세 저렴한 곳으로요. 물론 찾기는 힘들었지만요. 카페 별꼴은 카페 겸 인포숍(인포메이션숍)입니다. 한국에 없는 개념이긴 한데 궁금한 주제에 대해 알고 싶을 때 어디에 가면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책도 팔고요. 예를 들면 동덕여대 학생들이 커피를 마시러 왔다가 장애인 활동 관련한

포스터를 보고 장애인활동보조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장애인 자립지원센터를 알려주는 등의 정보를 전합니다. 정보가 유통되는 곳입니다.

별꼴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이유가 있나요?

사실 장애인들은 "우리 카페가서 커피 마실까?"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마주칠 일도 어울릴 만한 공간도 없죠. 꼴은 형태를 가르키는 건데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죠. 별꼴이야 할 때 그 별꼴이요. 보통 장애인을 대할 때 불쌍하다고 여기거나 대상화시키는 경향이 없지 않죠. 우선은 이 공간에서 자주 만나고 익숙해지면서 훨씬 서로서로 편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유선님이 이곳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저는 별꼴에서 영화상영도 하고 커피내리기 등 간단한 워크숍도 진행하고 있어요. 여성재단에 지원한 〈진zine 메이킹 워크숍〉 사업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많은 지원들이 있지만 문화활동을 하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문화활동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문화감수성을 갖게 하는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장애인들에게는 그 기회가 더 없기도 하구요. 커피내리기도 하는데 직업으로 연결시키려면 바리스타교육을 하면 좋겠지만 신체적인 노동능력이 없는 분들이 많으세요. 최대한 간단하게 최소한의 도구와 방법으로 기계없이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실제 해보는 작업을 합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에 주로 워크숍을 진행하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카페를 열어요.

계획한 진zine 워크숍이란?

〈진zine 메이킹 워크숍〉은 잡지를 만드는 거예요. 혼자서 기획, 집필, 편집, 제본, 프린트까지 인쇄물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만들어요. 매력적인 일입니다. 물론 팔거나 교환도 가능합니다. 워크숍은 장애인 비장애인의 경계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성적소수자,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 홈리스경험이 있는 사람, 장애인, 독립출판자, 디자인 경험이 있는 분들도 와요.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서로 만날 일이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 됩니다.
열 명이 모이면 열 종류의 진이 탄생합니다. 컴퓨터 디자인은 전문기술이어서 진입장벽이 높잖아요. A4용지에 글을 적어 접어서 만드는 아주 간단한 방법도 있고 옛날 인쇄방식으로 인쇄하는 분도 있고 다양하죠.

올해는 이곳 카페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진행해 볼까 해요. 2박3일 워크숍처럼요. 광화문에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반대를 위한 농성장이 24시간 열려있어요. 많은 분들에게 이 상황을 홍보도 할 겸 이곳에서 진행을 계획해보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문턱 없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고 언제나 커피 한잔 편하게 할 수 있는 곳,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곳, 카페 별꼴. 그 드나듦 역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차별 없는 곳으로 많은 이들에게 기억되면 좋겠다. W

이광희 디자이너, 그가 남수단에 희망을 심기까지

오랜 내전에 시달린 아프리카 남수단 톤즈에는 망고나무 3만 5천 그루가 서 있다. 이곳에 씨앗을 내린 이는 이광희 님. 한국여성재단 이사로 활동하고 본업은 디자이너다. 이광희부띠끄 대표인 그가 잊지 않고 매년 찾아가는 곳, 톤즈의 희망이야기를 들어본다.(편집자주)

디자이너로 바쁜 중에 그는 우연히 남수단을 방문하게 된다. "아프리카에 봉사활동을 하는 김혜자님과 친분이 전부터 있었어요. 2009년에 동행을 하게 되었죠."그가 본 톤즈는 오래 내전을 겪어 열악하다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희망 한 톨 보이지 않는 곳이었다. 다시 올수는 없을 거 같은 땅. 그런 그는 우연히 근처 시장에서 팔리는 망고를 보았다. "그 망고가 지금의 희망을 싹트게 했다고 할까요. 돌아와서 계속 생각이 났어요. 만약 엄마가 보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엄마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이르러서는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섰어요.

망고나무를 심고 희망고 빌리지를 세우다

이광희 디자이너는 2010년 사단법인 희망의 망고나무(이하 희망고)를 설립하고 2011년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국제 구호는 대부분은 1:1 자매결연이 많아요. 하지만 그 아이가 혹은 그 여성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의 변화가 없고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그는 교육과 경제적 자립이 이 지역에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망고는 척박한 땅에 6~7년의 시간을 견딘 후 100년을 사는 식물이다. 먹을 것이 부족한 건기에 열매를 맺는 망고나무가 중요한 식량이자 소득원이 될 수 있었다. 한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나무였다. 그는 무상으로 제공된 대지에 망고나무를 대량으로 심었다. 또 하나는 복합교육문화센터(교육)가 중심인 희망고 빌리지 설립. 2011년에 남수단 남톤즈 카운티가 희망고의 지속적인 활동에 대한 신뢰의 표시로 대지 18만 평을 무상으로 제공해주었다. 이곳에는 목공기술과 재봉기술을 가르치는 직업교육, 영어와 위생교육을 한다. 유치원, 초등학교, 축구교실, 망고나무 묘목장, 급식소가 들어서 있다. 최근 직업학교 1기생을 무사히 배출했다.

그가 더 특별히 신경썼던 건 여성들이었다. "먼저 부녀회를 조직했어요. 여성이 살아나야 공동체도 산다고 생각해요. 여성재단도 여성의 자립과 역량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죠. 엄마들이 자립하면 아이들, 그리고 한 가정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의 가방과 교복은 모두 여성직업학교 엄마들의 작품입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은 꾸준히 바자회와 패션쇼 수익금 등으로 모금을 했다. "희망고는 작은 단체에요. 그렇지만 한 지역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패션쇼과 바자회의 수익금, 그리고 직접 만든 희망GO 앞치마의 수익금, 기업 후원들이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모두 이 가치에 동의해주시니까요."

5년 동안 그가 해온 일들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하지만 그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톤즈 사람들과의 우정이다. "저를 마마리(Mama Lee)라고 불러요. 한번 이곳에 왔던 사람들은 꼭 다시 오겠다고 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약속에 이곳 주민들은 가지고 있던 희망마저 접게 되버리니까요. 저는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톤즈를 가면 축제를 열어 함께 몸을 부대끼며 웃고 즐거움을 나눕니다.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낫다는 생각, 혹은 그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은 해본 적 없어요. 비교할 수 없는 행복과 감사의 마음이 이들에게 있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전쟁 후 갈 곳 없는 고아들과 나환자들을 돌봐 오셨어요. 남수단 한센인마을(관자)을 찾게 된 것도 운명같은 일이었죠. 그 곳에 망고나무를 심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더 절실한 곳, 더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갈 겁니다."

나눔은 소통하는 것, 상대방의 마음에 가 닿는 것

빽빽한 일정을 소화하느라 몸이 두 개여도 모자라지만 여성재단 후원금마련을 위한 경매행사에 기꺼이 의류를 기부하기도 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간직해야 할 진짜 나눔에 대해 얘기했다. "요즘은 기부문화가 많이 확산되어 있어서 오히려 소홀할 수 있는 건데요. 진짜 나눔은 현장에 꼭 필요한 것,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눔은 소통하고 나의 마음이 상대의 마음에 가 닿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진실하고 꾸준한 관심으로 책임을 지는 거라 생각합니다."

직업학교 졸업생들의 창업을 돕기 위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획중인 그는 오늘도 하루종일 회의가 이어진 탓에 피곤한 빛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 모습을 애써 숨기지 않고 천천히 그의 신념과 책임을 희망을 전해주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진실하게 다가가길 바라면서 말이다. W

누가 뭐래도 이끔이가 꽃보다 아름답다

나눔의 꽃 100인 기부릴레이 2016은 올해 어떤 기부자님을 만나게 될지 마음이 심쿵하다. 나눔을 위해 기부자님을 만날 준비에 여념이 없는 이끔이들의 마음도 설레고 있다. 2월 18일에 개최된 수퍼이끔이모임 현장을 찾았다.(편집자주)

❶ 100인 기부릴레이 이끔이는 희망세상을 만드는 복주머니다_왕인순이끔이(한국여성노동자회 이사장)

올해로 열두 번째네요. 주변에서 왕언니라고 부릅니다. 저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만난 요가로 요가선생과 여성운동을 서포팅하고 있어요. 10년 정도 하다보니 저의 목표가 달라졌어요. 저의 목표는 저의 작년 주자가 올해에는 이끔이가 되는 겁니다. 덕분에 저는 새로운 기부자를 찾아야하니 휘청휘청합니다. 새 기부자를 찾는 건 무척 어렵지만 어렵게 만난 기부자는 여성재단이 마음을 써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세요. 때때로 문화나눔 티켓도 좋구요.

❷ 100인 기부릴레이 이끔이는 따뜻한 햇살이다_김수정이끔이(국제사이버대학교 교수)

올해로 여덟 번째 도전입니다. 처음엔 주자였는데 재밌을 거 같아 사이버대학 학생들과 함께 시작했었어요. 저희 학교는 상반기에 100인 기부릴레이를 하고, 하반기에는 바자를 해요. 일 년에 두 번의 나눔을 합니다. 저는 브릿지 역할을 참 잘해요. 필요한 사람을 잘 엮어주는 브로커라고 할까요. 학생들이 돈이 많지 않지만 만 원 정도 기부하는 건 어려워하지 않아요. 4월 엠티가서 일괄 완주합니다.

❸ 100인 기부릴레이 이끔이는 봄나무다_이경래이끔이(서울시립문래청소년수련관 특화사업팀장)

2년 전에 여성재단을 알게 되고 그 다음해에 이끔이가 되었지만 완주하진 못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올해는 우선 이 캠페인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바른 기부문화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여성재단, 100인 기부릴레이를 소개하고 싶어요. 물론 기부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중요하지만 기부를 하는 것 자체가 재미나면 좋겠어요. 카톡의 이모티콘 같은 걸 선물로 주면 어떨까요? 무겁지 않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❹ 100인 기부릴레이 이끔이는 포도넝쿨이다_이영경이끔이(서울국제학교 11학년)

올해 1월에 여성재단에 자원봉사를 와서 100인 기부릴레이를 듣게 되었어요. 처음 들었을 때 흥분되고 기분 좋은 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바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구들과 친구들, 학교 선생님께도 기부릴레이를 알리고 참여하도록 해볼께요. 걱정은 됩니다만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❺ 100인 기부릴레이 이끔이는 봄바람이다_이경순이끔이(한국여성재단 이사)

그 동안 한번 빠지고 계속 참여해왔어요. 매해 부담스럽지요. 남한테 돈 내라고 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100인 기부릴레이는 기쁜 일이고 가치있는 일, 쉽고 좋은 거라고 생각해보세요. 저는 우선 홈페이지에 자료를 올려요. 미국에 있는 친구들도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어서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오기도 해요. 우리 나이 때는 손주 자랑을 하고 싶어하잖아요. 홈페이지에도 손자 사진을 올리는 대신 기부하라고 했더니 기부금을 보내주기도 했어요. 100인 기부릴레이로 기부의 인연을 맺게 되면 이후에 다른 모금캠페인 정기기부자로 권유해보세요.

❻ 100인 기부릴레이 이끔이는 나눔을 깨우는 알람시계다_강원화이끔이(질문발전소 대표)

여성재단을 알고 100인 기부릴레이를 하는 동안 저에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둘째 아이도 생기고 공부를 시작해서 학교도 가고요. 100인 기부릴레이를 하다 보면 내가 요즘 어떤 사람들이랑 지내는지 알 수 있어요. 나를 돌아보게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라도 필요한 일을 하게 해 주는 끈이 100인 기부릴레이입니다. 앞으로 10년 꼭 채우겠다는 목표가 있어요. 얼마를 모금하겠다는 목표는 세우기 어렵지만 기부를 권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❼ 100인 기부릴레이 이끔이는 여성을 알리는 알림창이다_최형숙이끔이(인트리人Tree 대표)

미혼모단체에서 일하고 있어요. 작년에 처음 이끔이에 도전해서 완주했습니다. 저를 잘 아는 분들이 주로 기부해 주셨는데 그분들이 100인 기부해 보더니, 여성에 대해 알게 되고 우리 단체에도 관심을 더 가져주셨어요. 남편에게도 릴레이에 참여시킬 계획이에요. 작년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열리는 페미니즘 미디어아티비스트 비엔날레 2016

디지털시대를 대표하는 미디어와 여성주의를 이야기하는 단체가 있다. 바로 대안영상문화발전소아이공(이하 아이공)이다. 대표를 맡고 있는 김장연호님은 2002년 설립 때부터 이곳에서 활동해왔다. 지금까지 끈기있게 생존해왔다고 말하는 그에게서 여성주의 미디어의 현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짐작할 수 있다. 2016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 선정된 사업을 통해 좀 더 자세히 들어보았다.(편집자주)

여성주의 미디어로 여성과 소수자의 목소리를 내다

미디어아트페스티벌 "서울국제뉴미디어페스티벌"을 15회째 주최하고 있는 아이공(대안영상문화발전소아이공)은 2002년에 설립된 한국 최초의 대안 미디어단체다. 국제대회를 매년 진행하고 있는 곳이라 규모가 꽤 큰 줄 알지만 서너 명의 상근자로 끈기있게 한 우물을 팠다. "아이공은 일인칭 I와 빌 '공空'이 합쳐진 단어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존의 관습을 버리고 새로운 문화로 채우자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성과 소수자 그리고 대안매체가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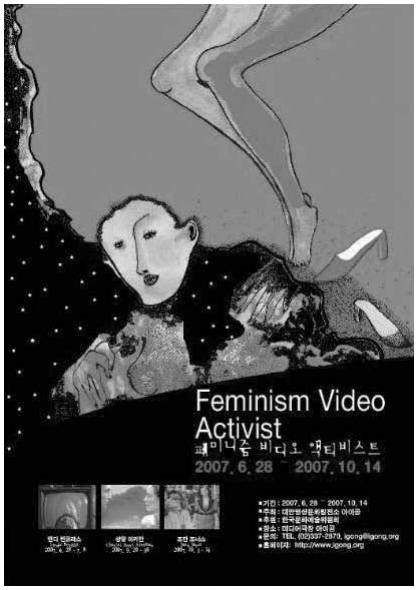
여성+소수자+대안매체=대안영상

개인 한 명 한 명이 미디어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기존 상업주의 미디어가 범람하는 곳에서 쉽지 않다. "텔레비전과 영화 등 자본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하는 곳에서 개인의 생각을 작품으로 만든다는 것은 어렵죠. 하지만 개인이 휴대폰, 디지털카메라, 컴퓨터 등 미디어를 소유하게 되면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어요."그래서 2003년 여성주의라는 내용과 디지털미디어라는 형식을 가진 〈페미니즘비디오엑티비스트〉를 기획하게 되었다. 이때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페미니즘 비디오 아티스트와 활동가를 조망한 이 첫 기획전은 국내 많은 여성들이 찾아 연일 매진되었다.

장르를 넘나든 실험비디오 다양한 작품들이 탄생하고 상상하는 것들도 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빠르게 진화했다. 개인이 카메라를 들었을 때, 그 내용은 기존의 것보다 훨씬 대안적이고 형식이나 내용면에서도 새로운 것이 탄생했다. 실험비디오, 미디어아트, 넷아트, 퍼포먼스비디오 등 다양한 영상, 그리고 상상력과 여성주의가 가미된 미디어행사는 사람들의 관심속에서 2005년, 2007년, 2010년까지 진행되었다. 트린T민하, 조안조너스 등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여성작가들의 작품세계를 조망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비어버린 극장을 보며

"그런데 어느 순간, 테크놀로지(기술)가 메시지를 압도하게 되면서 여성주의를 성찰하는 주제로는 빈약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화려한 포장지 같은, 심지어 작가들도 여성주의로 평가받기보다는 현대미술영역에서 평가받는 것을 원하는 경향이 생기기도 합니다." 당시 국내에는 대학의 여성학과가 폐과 위기로 몰리고 여성주의 문화예술 단체들이 해체 위기



를 경험하는 등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 "그 당시 아이공의 기대와는 다르게 전시장과 극장에는 객석을 채우기가 힘들었어요. 특히 여성관객이 찾아오지 않았죠. 아이공극장에서도 여성작가 기획전 등을 꾸준히 여는데 그때마다 관객동원이 어려웠어요."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미디어는 여전히 아이돌과 연예인을 쫓는 팬덤문화로 여성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고 내가 없는 다른 허상을 위한 장치들로 가득했다. 비엔날레는 잠시 중단됐다.

다시 열리는 페미니즘 미디어아티비스트 비엔날레 2016

2015년은 여성혐오 등 심각한 일들이 많았다. "소라넷 사건은 디지털 시대의 폭력성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에요. 미디어를 무기삼아 여성을 공격하는 여성혐오자들, 여성인권이 묵살되는 사회분위기는 다시한번 여성운동, 성찰하는 문화운동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 준 사건이었습니다."
문화운동을 통해 여성주의는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성들을 미디어로 설득하는 작업이라고 말한다. 성평등사회조성사업으로 선정된 〈페미니즘 미디어아티비스트 비엔날레 2016〉도 연속선상에 있다. 4월부터 매달 국내외 여성주의 미디어아트(단채널비디오아트, 설치, 사운드, 컴퓨터아트)를 공모해서 두 편 정도 선정해서 아이공극장에서 전시와 상영을 10월까지 매달 여성작가 작품들을 선보이며 인큐베이팅을 한다. "이번에 공모에 여성신인작가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여성주의 관점이 풍부한 작가들이요. 자유롭고 자발적이고 자연스럽다고 할까요. 지금 젊은 작가들은 여성주의가 자연스럽게 녹아있어요. 남성시각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여성주의로 비틀어 보여주기도 하고요." 전시와 상영을 통해 선정된 몇 작품은 10월중에 열리는 전시회에 기성 작가들과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대중적인 대안미디어의 확산을 통해 많은 신인여성작가들이 탄생을 기대하며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페미니즘 미디어아티비스트 비엔날래 2016〉으로 고고! W

2016 이해관계자 모임 개최

지난 2월 28일, 한국여성재단 주요 이해관계자모임이 열렸다. 기부자대표로 이윤정님과 이경래님, 파트너단체로는 남혜연님, 파트너 기업대표로 서상웅님, 김혜숙님, 직원대표로 구현주님과 박기남님, 위원대표 장병인님이 참석했다. 이혜경 이사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어, 2016년 한국여성재단 활동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중대 이슈를 선정하여 발표하는 등 당면 과제들을 함께 공유하고 논의하였다. 이해관계자모임은 올해 처음 개최되었으며 하반기에는 좀 더 구체적인 대안마련 중심의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모임 내용은 〈2015년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한국여성재단 연차보고서〉에 실릴 예정이다.

100인 기부릴레이 2016 청소년이끔이 홍보영상촬영

4월 1일부터 시작하는 100인 기부릴레이 2016에 참여하는 청소년 이끔이들이 뭉쳤다. 올해 새내기 이끔이 이영경(서울국제학교11학년), 홍석원(불이학교3학년), 작년에 이어 올해 이끔이로 참여하는 이가윤(양재고등학교1학년), 이슬아(덕성여자고등학교3학년), 최하늘(산마을고등학교2학년) 다섯 명은 처음 만난 사이답게 어색해했지만 카메라 앞에선 즐겁게 촬영에 임하는 미디어 세대다운 면모를 보였다.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9기 연구보고회 및 수료식, 10기 장학증서 전달식 진행

유한킴벌리 후원,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성공회대 실천여성학전공)〉의 9기 연구보고회 및 수료식이 지난 2월 1일 성공회대에서 개최되었다. 수료식에는 이정구 성공회대학교 총장, 임영화 유한킴벌리 부사장, 이혜경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가 참석하여 장학생들의 수료를 축하했다. 한편 3월 2일, 새로 입학한 10기 장학생 10명에 대한 장학증서 전달식도 진행됐다.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지원사업〉 네트워크 워크숍 개최

지난 1월 28일, 2016년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에 선정된 풀뿌리 여성활동가, 여성문화예술인 총 14명이 한 자리에 모여 올 한해 계획들을 공유하는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개개인의 활동 계획뿐만 아니라 준비과정에서의 고민들을 함께 나누며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1년여 간의 활동을 다듬고 힘찬 다짐을 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미래포럼 초고령사회 디자인클럽, 마을답사

"마을은 현재를 지탱하는 힘이며, 미래를 여는 동력이다. –진안군마만들기지원센터 설립문 중" (사)미래포럼의 회원 및 초고령사회 디자인클럽 연구팀 8명은 지난 3월 18일(금)~19(토), 전북 진안군, 충남 홍성군을 방문하여 초고령사회의 지역 커뮤니티 현장을 돌아보았다.

〈2016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선정단체 워크숍 개최

〈2016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2차 자유주제 공모에 총 9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지난 3월10일(목), 9개 파트너단체 활동가들은 현장에서의 경험과 전문 이론을 바탕으로 올해 진행할 사업들에 대해 논의했다. 2016년에는 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과 2030세대가 겪고 있는 비정규직, 최저임금, 외모차별 등 한국사회 여성들이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과 변화를 모색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된다.

〈전북대–유한킴벌리 NGO여성활동가리더십교육〉 개강

2016년 〈NGO여성활동가리더십교육〉은 호남권 여성활동가와 함께 한다. 유한킴벌리가 후원하고 전북대학교가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여성, 환경, 소비자운동, 마을만들기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분들을 대상으로 3월17일 개강식이후 4월21일까지 총14강이 진행중이다. NGO여성활동가 리더십교육은 강원권(상지대), 영남권(계명대)에 이어 호남권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6년 1월~2월 기부자 명단

Aileen Park(박아일린) ㄱ 강경림 강경희 강기숙 강남식 강덕순 강덕주 강덕희 강도연 강명숙 강명진 강문영 강미라 강미주 강민아 강범희 강보승 강보은 강석기 강성태 강순애 강순원 강순자 강승희 강신해 강연조 강원화 강은나 강은숙 강인순 강제훈 강종남 강종완 강주란 강지연 강지원 강진애 강태리 강현선 강현옥 강혜규 강혜선 강혜숙 강혜정 강호간 강효선 강희숙 경춘옥/김귀용 고경표 고명화 고명희 고영아 고영주 고영진 고유지 고윤섭 고은정 고주형 고현칠 고희경 공명숙 공옥분 공인자 곽영선 곽용규 곽은숙 곽지영 곽지혜 곽태성 곽현미 곽희환 교보생명보험(주) 구민수 구상권 구영남 구옥순 구인선 구자민 구재웅 구춘자 구충본 구현주 구희 국미애 국영자 국윤혁 권경옥 권광자 권금주 권기석 권명희 권민영 권민정 권상진 권순선 권순옥 권순희 권승희 권애원 권양희 권영빈 권영선 권은숙 권은혜 권인숙 권주미 권진희 권태영 권태완 권태정 권태혁 권혁진 권혜경 권혜영 권호경 권희숙 김갑순 김강식 김건식 김건우 김경덕 김경란 김경미 김경석 김경섭 김경숙 김경순 김경식 김경심 김경아 김경애 김경옥 김경은 김경임 김경자 김경혜 김경환 김경희 김공태 김광미 김광수 김광옥 김광웅 김광이 김광제 김광하 김규식 김규아 김규연 김규태 김근아 김근애 김금례 김기상 김기선 김나리 김나영 김남주 김남호 김다솔 김다영 김다올 김대규 김대승 김덕선 김덕심 김덕일 김도수 김도현 김도협 김동식 김동일 김동준 김동천 김동호 김둘순 김득현 김만한 김매화 김명동 김명선 김명숙 김명순 김명옥 김명의 김명일 김명임 김명진 김명해 김명화 김명희 김무진 김문수 김문정 김미경 김미령 김미림 김미숙 김미순 김미애 김미영 김미자 김미주 김미향 김미희 김민경 김민성 김민영 김민예숙 김민주 김민진 김병관 김병두 김병수 김병준 김보라 김보연 김보영 김복열 김복자 김봉겸 김봉일 김분기 김상기 김상본 김상욱 김상진 김상환 김상훈 김상희 김생기 김서영 김서현 김선갑 김선미 김선복 김선순 김선혜 김선화 김선희 김성규 김성근 김성분 김성숙 김성원 김성월 김성태 김세라 김세화 김소현/김경태 김수경 김수미 김수민 김수빈 김수연 김수열 김수영 김수지 김수진 김수현 김수희 김숙경 김숙기 김숙성 김숙연 김숙주 김순근 김순기 김순덕 김순복 김순애 김순연 김순열 김순영 김순자 김시온 김시진 김신정 김아라 김애숙 김애정 김양자 김양희 김언정 김엘리 김연례 김연미 김연화 김연희 김영국 김영규 김영균 김영래 김영미 김영복 김영선 김영순 김영신 김영옥 김영자 김영주 김영채 김영철 김영화 김영희 김예진 김오목 김옥은 김옥천 김용 김용관 김용덕 김우술 김우향 김운주 김원재 김원지 김유미 김윤경 김윤선 김윤수 김윤주 김윤지 김윤철 김윤희 김은경 김은미 김은상 김은숙 김은순 김은실 김은아 김은영 김은정 김은주 김은진 김은희 김의상 김의향 김이경 김익자 김인경 김인섭 김인수 김인숙 김인순 김인자 김인춘 김자현 김잔디 김장림 김재광 김재구 김재민 김재삼 김재선 김재연 김재천 김재춘 김재헌 김정규 김정기 김정대 김정란 김정미 김정선 김정수 김정숙 김정순 김정애 김정원 김정일 김정임 김정자 김정현 김정혜 김정화 김정훈 김정희 김종덕 김종순 김종주 김종희 김주영 김주원 김주헌 김주현 김준승 김준아 김준희 김지란 김지석 김지영 김지은 김지일 김지행 김지혜 김진근 김진성 김진수 김진아 김진옥 김진용 김진욱 김진원 김진일 김진태 김진희 김차순 김창근 김창연 김창재 김철순 김철홍 김청희 김춘지 김춘희 김태석 김태순 김태연 김태옥 김태유 김태진 김태환 김태훈 김하영 김학명 김한성 김해조 김행옥 김행인 김향미 김헌관 김현/김민정 김현경 김현미 김현빈 김현수 김현숙 김현영 김현옥 김현정 김현주 김현지 김현진 김형기 김형성 김형재 김혜경 김혜련 김혜리 김혜미 김혜숙 김혜순 김혜연 김혜영 김혜은 김혜전 김혜정 김혜진 김홍기 김홍자 김효선 김희경 김희숙 김희순 김희연 김희정

ㄴ 나성주 나성희 나영이 나지연 나진희 남경희 남기용 남길현 남명순 남미정 남인순 남정민 남진숙 노무현 노선숙 노옥련 노원 노은숙 노은하 노의정 노재희 노정섭 노정아 노하정 노현준 노형수 노형준 노혜진

ㄷ 도이현 도현철 동고은 두석호

ㄹ 류경연 류복연 류시현 류영선 류인숙 류인혜 류정희 류춘희 류태한

ㅁ 마경희 마선자 마정윤 맹지열 맹혜정 명진숙 모은영 모지은 모혜자 모희현 문경숙 문경술 문경환 문금주 문명숙 문명옥 문보경 문봉순 문새미 문성원 문숙남 문시윤(문의성) 문영호 문유경 문은영 문인선 문재웅 문재호 문정곤 문정례 문진석 문태희 문희영 민가영 민무숙 민옥기 민진아 민형태 민희진

ㅂ 박갑순 박경림 박경미 박경수 박경순 박경아 박경희 박광후 박규리 박근희 박기남 박기순 박기용 박대근 박동렬 박동언 박득숙 박란희 박명선 박명수 박명애 박명자 박명주 박묘진 박미라 박미연 박미화 박민숙 박민주 박민혁 박민희 박병호 박병희 박보환 박사용 박삼숙 박상현 박상희 박서연 박석자 박선인 박성림 박성은 박성택 박성희 박소연 박소진 박수미 박수영 박숙희 박순규 박순영 박순옥 박승일 박승진 박신연숙 박애경 박연라 박영민 박영삼 박영숙 박영아 박영주 박영준 박영희 박옥필 박용분 박용선 박용안 박용호 박은숙 박은순 박은위 박은정 박은희 박의자 박이례 박익수 박재길 박재석 박재욱 박정곤 박정례 박정숙 박정순 박정영 박정자 박정혜 박정희 박종남 박종순 박종우 박준영 박준용 박지수 박지연 박지영 박지효 박진 박진명 박진아 박진영 박진우 박진향 박찬범 박찬주 박채용 박춘예 박충순 박현 박현순 박현신 박현의 박현자 박현정 박형우 박형주 박혜란 박혜숙 박혜진 박홍순 박효숙 박흥철 박흥희 박희옥 반정애 방성희 방윤혁 배선희 배소정 배숙일 배연희 배영숙 배은주 배종학 배진숙 배한영 백경자 백기덕 백명임 백부서 백순애 백순화 백승희 백연아 백영경 백진영 백형철 백화선 베베앙쥬 변성윤 변영선 변영우 변영희 변용태 변정심 변형석 복진수

ㅅ 사단법인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서경석 서경옥 서경희 서대수 서덕순 서동규 서동진 서미경 서미석 서민정 서수남 서승복 서승환 서영미 서영순 서영애 서영철 서우찬 서점순 서정섭 서정숙 서정호 서정화 서조아 서지현 서지희 서진숙 서현숙 서희숙 서희주 석나리 석미영 석미화 석영미 석영애 석영천 석용원 선미영 선수연 선은주 선재희 선지예 선진국 설경종 설영수 성경남 성경애 성기확 성명중 성인순 성정현 성형주 소옥녀 소희로자 손만순 손병준 손석철 손순연 손압구 손연숙 손영숙 손재광 손진건 손현숙 손현옥 송기욱 송기원 송다영 송미령 송미영 송민경 송민수 송방희 송상섭 송상희 송세령 송영선 송영숙 송영순 송영호 송예숙 송은영 송은우 송인범 송인자 송재용 송점심 송정미 송정애 송주연 송한현 송현주 송혜영 순수정 순천미르치과병원 신경아 신동석 신동철 신명순 신미란 신미숙 신미순 신봉균 신봉남 신성태 신소영 신영미 신영희 신예나 신용신 신유미 신은섭 신은숙 신인철 신정애 신종은 신지원 신진남 신진영 신찬호 신창재 신현옥 신현정 신현철 신호상 신호성 신희숙 심경자 심복길 심숙경 심영희 심재붕 심재춘 심정희 심창학 심현숙 심형은 심혜경 심효연

ㅇ 아이피카소브러쉬주식회사 안경모 안기선 안기현 안덕남

안도연 안미란 안미영 안미화 안민석 안상진 안선영 안선주 안성민 안성회 안세준 안소연 안순화 안승용 안승욱 안영주 안은성 안인숙 안인영 안재철 안종희 안준호 안지현 안진희 안필락 안현희 안혜영 양금순 양미초 양미현 양민석 양서량 양세경 양이숙 양일선 양재섭 양정기 양태경 양현식 양현자 양현정 양후전 양희연 양희영 양희은 어혜진 엄선예 엄양숙 엄재숙 엄태익 엄태호 엑티브정보통신(주) 여미숙 여선숙 여성문화이론연구소(사) 여진경 여혜숙 연미자 연은희 염미화 염인순 예은숙 오가영 오경철 오금식 오동석 오명순 오명옥 오상병 오세홍 오수정 오숙환 오승윤 오양희 오영미 오영수 오영실 오윤겸 오재숙 오정순 오정용 오정호 오중휘 오지섭 오진흠 오춘희 오형원 오희주 옥지영 옥천수 왕성옥 왕인순 왕지연 우대석 우미숙 우상숙 울산여성의전화 원경숙 원예닮 원예봄 원옥금 원용걸 위소희 유경모 유경미 유경화 유경희 유난희 유명종 유무선 유선기 유선희 유소빈 유숙자 유승완 유영미 유영실 유용재 유윤임 유은자 유일영 유재경 유재용 유정신 유정원 유정자 유정희 유주영 유지은 유해미 유현정 유혜정 유화숙 유화열 유환구 유희정 육성희 육희선 윤경숙 윤계원 윤말이 윤미리 윤미재 윤비연 윤석남 윤석란 윤선정 윤성희 윤숙 윤순규 윤영경 윤영배 윤옥경 윤유정 윤은영 윤은정 윤인숙 윤정림 윤정자 윤정희 윤종철 윤지연 윤지영 윤진호 윤하연 윤현숙 윤형은 윤혜영 윤흥준 은채원 음종성 이가윤 이가춘 이강수 이건정 이경선 이경숙 이경순 이경신 이경애 이경준 이경희 이계경 이공례 이관호 이광미 이광민 이광우 이광호 이국화 이권현 이귀우 이규선 이근재 이근정 이근주 이근현 이금복 이금순 이금재 이기연 이나래 이남희 이대희 이덕남 이덕종 이덕혜 이도형 이동신 이동훈 이동희 이라영 이리화 이명선 이명자 이명화 이문숙 이미경 이미소 이미숙 이미영 이미자 이미향 이민경 이범기 이범희 이보라 이보희 이복순 이봉찬 이상근 이상덕 이상미 이상민 이상엽 이상운 이상윤 이상은 이상익 이상태 이서연 이서윤 이서형 이선례 이선미 이선민 이선영 이선용 이선이 이선자 이선희 이성숙 이성열 이성우 이성은 이성일 이성자 이성헌 이성희 이소희 이송희 이수미 이수연 이수옥 이수이 이수정 이수진 이수행 이수현 이수희 이숙인 이숙향 이순미 이순오 이순자 이순헌 이순희 이승수 이승현/이승우 이승희 이시연 이쌍선 이애란 이애리 이양주 이언주 이연옥 이연이 이연정 이연제 이영고 이영기 이영미 이영수 이영숙 이영순 이영아 이영우 이영임 이영자 이영주 이영희 이옥경 이옥분 이옥의 이옥자 이옥희 이완정 이용갑 이용선 이용성 이용일 이용정 이용찬 이우철 이원대 이원식 이원희 이유경 이유림 이유진 이윤경 이윤성 이윤수 이윤숙 이윤재옥 이은경 이은수 이은숙 이은아 이은영 이은우 이은정 이은주 이은행 이은희 이응수 이의녀 이의영 이의환 이이섭 이인숙 이인순 이인우 이인자 이인제 이인화 이자영 이재숙 이재순 이재연 이재옥 이재원 이재준 이재한 이점무 이정숙 이정옥 이정원 이정자 이정철 이정현 이제구 이종순 이종용 이종윤 이종훈 이종흥 이주주 이주현 이주홍 이주희 이지락 이지숙 이지연 이지영 이지원 이지현 이지훈 이진경 이진명 이진서 이진석 이진숙 이진아 이창균 이창하 이채윤 이철수 이철순 이춘아 이치우 이택호 이파라 이필영 이하린 이해경 이현선 이현숙 이현순 이현희 이혜선 이혜성 이혜숙 이혜영 이혜정 이혜준 이혜희 이호경 이호대 이호란 이호선 이홍제 이회영 이효숙 이효재 이후영 이흥재 이희석 이희선 이희숙 이희원 이희정 인포뱅크(주) 임경수 임경숙 임경순 임경아 임경옥 임경윤 임경자 임기수 임덕희 임선희 임성무/김말순 임성원 임성준/강양숙 임성택 임수연 임수호 임숙자 임순남 임순영 임영미 임영주 임원대 임인숙 임정규 임정기 임준섭 임진식 임진철 임채홍 임춘근 임현주 임형근 임호근 임희숙

ㅈ 자숙예 장경숙 장경월 장길웅 장덕현 장동애 장명련 장봉화 장석만 장성희 장소연 장소원 장소현 장순연 장승현 장애희 장연숙 장연진 장영미 장영석 장영아 장영윤 장영임 장영혜 장욱형 장윤선 장인선 장인정 장재철 장정아 장정희 장주연 장철경 장한샘 장해경 장혁재 장현진 장혜영 장혜자 장희숙 장희연 장희원 전남미 전대근 전만식 전미경 전미영 전민경 전부숙 전성휘 전순천 전순형 전영미 전영순 전영애 전영희 전예진 전옥순 전요왕 전용수 전우용 전원수 전윤미 전은규 전은서 전재문 전지애 전지홍 전진숙 전진영 전태자 전현경 전현주 전혜경 전혜림 정경수 정경옥 정경철 정구선 정규홍 정근하 정길석 정길심 정다정 정명숙 정미경 정미모 정미선 정미영 정미자 정미화 정민경 정민수 정민자 정복주 정삼여 정상만/조성은 정상철 정선미 정선아 정선영 정선자 정성녕 정성화 정세은 정소영 정숙윤 정승희 정연아 정영숙 정영오 정영지 정용주 정원영 정원윤 정유림 정유연 정유정 정윤헌 정은경 정은선 정은자 정은주 정은화 정이기 정인선 정인하 정재실 정재형 정재호 정재훈 정점순 정정수 정정숙 정정옥 정지용 정지윤 정지훈 정진옥 정창근 정창남 정청자 정태로 정하선 정하자 정현 정현미 정현아 정현혜 정혜경 정혜민 정혜진 정효지 제송욱 조경미 조경자 조광행 조광호 조권중 조규 조규원 조기한 조동환 조명숙 조미 조미래 조미선 조미영 조미진 조배원 조병준 조복희 조상래 조성덕 조성민 조성희 조수용 조승희 조아라 조연숙 조연희 조영란 조영숙 조영일 조영한 조영해 조옥라 조옥화 조용남 조윤세 조은영 조임중 조정숙 조정연 조정하 조정훈 조정희 조주헌 조준경 조지혜 조진숙 조진희 조춘이 조항례 조혁종 조현주 조형 조혜련 조혜정 조호정 조화자 조흥식 주경은 주미영 주석중 주선숙 주양애 주영 주해숙 주혜명 지상구 지숙자 지일조 진민자 진소미

ㅊ 차경선 차세원 차승현 차연희 차재명 차주영 차진옥 차철용 채금순 채수경 채연진 채연화 채용석 채은경 채지연 천병석 천소연 천정윤 천희란 최경수 최경숙 최경순 최경애 최경일 최권호 최길석 최길용 최덕희 최도란 최동길 최막래 최명진 최문영 최미경 최미애 최민호 최병희 최보솜 최새은 최석준 최선아 최선열 최성남 최성철 최송실 최수경 최수정 최수진 최수현 최수환 최순복 최순임 최승희 최애경 최양호 최영산 최영욱 최영준 최옥숙 최운정 최원석 최유경 최유진 최윤미 최윤희 최은경 최은정 최은주 최은희 최인 최인이 최인혁 최인형 최재숙 최재식 최정규 최정수 최정윤 최정은 최정인 최지선 최진 최진희 최태진 최하늘 최행자 최현수 최현주 최현호 최형미 최형숙 최형욱 최혜경 최호식 최화숙 최화연 최효진 최희경 추교훈 추연식 추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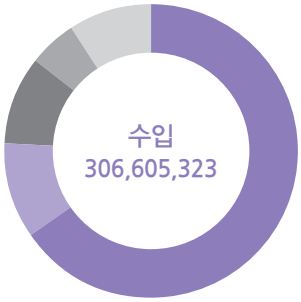
ㅌ 탁성희

ㅍ 편민자 표근혜/표일용 피선희

ㅎ 하경란 하만호 하미선 하순원 하영선 하윤숙 하태성 하향자 하현정 한명희 한미옥 한미정 한민숙 한송이 한숙자 한승미 한승호 한애자 한연정 한영애 한영자 한옥연 한용호 한원경 한은주 한일순 한재수 한정연 한정욱 한정의 한진희 한창호 한충화 한혜경 한혜준 허명지 허목화 허미연 허미영 허선 허선이 허성우 허소연 허소정 허수연 허신학 허유정 허유진 허윤정 허윤희 허은실 허정옥 허해영 허호영 현준식 호성투어 호옥희 홍금택 홍기산 홍기태 홍미경 홍미리 홍미선 홍미정 홍미희 홍상욱 홍상호 홍석보 홍성희 홍수연 홍순명 홍영구 홍영애 홍예영 홍예진 홍용희 홍은희 홍인숙 홍정아 홍진선 홍춘택 홍현옥 홍현희 홍혜정 황경연 황경주 황규정 황나래 황미영 황미향 황병덕 황서영 황석민 황은주 황은진 황인섭 황인희 황정섭 황정혜 황주연 황진택 황훈영 희망웅상

수입 Inc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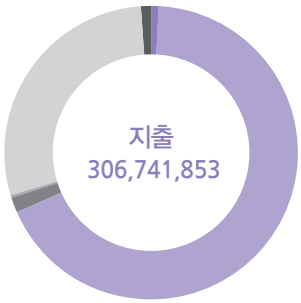
항목	내용	금액(원)
기업지정기부금	기업, 기관, 단체 등 국내외 지정기탁 사업지원 및 물품기부 등	200,779,670
성평등사회조성 기부금	100인기부릴레이 기부 여성가장지원 지정기부 만만클럽(폭력없는세상, 안전한 사회 만들기) 일터(가게)나눔 동전나눔 해피빈 콩기부 싸이월드 기부 카드포인트 기부 등	31,745,231
여성건강지원 기부금	건강지원 지정기부금	30,172,590
특정명의기금	봄빛장학기금	16,000,000
운영후원금	개인, 기관의 한국여성재단 협찬 등	150,000
기타수입	이자수입, 임대료수입, 캐쉬SOS상환기금 등	27,757,832
	총수입	306,605,323



- 기업지정기부금 65.5%
- 성평등사회조성기부금 10.4%
- 여성건강지원기부금 9.8%
- 특정명의기금 5.2%
- 운영후원금 0.0%
- 기타수입 9.1%

지출 Expense

구분	항목	내용	금액(원)
고유 목적 사업비	모금사업비	모금행사, 기부자관리 등	3,233,390
	배분사업비	1. 소외여성 empowerment 사업 · 여성가장 및 활동가, '엄마에게 희망을' 건강지원사업 (CJ모금) ·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 · 다문화여성 창업지원사업 (J.P. Morgan) · 봄빛장학금 (봄빛기금) 2. 여성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 · 여성NGO장학사업 (유한킴벌리) ·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 (캐쉬SOS상환 기금) · 여성공익활동가 쉼프로젝트–짧은여행 · 긴호흡 (교보생명)	206,787,579
	홍보사업비	소식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행 및 홈페이지, 홍보영상물 제작 등	5,532,924
	연구사업비	간담회비 등	156,400
운영비	경상비	인건비, 수수료, 사무행정비 등	88,330,550
	시설비	건물유지관리비 등	2,701,010
	총지출		306,741,853



- 모금사업비 1%
- 배분사업비 67.4%
- 홍보사업비 1.8%
- 연구사업비 0.1%
- 경상비 28.8%
- 시설비 0.9%

100인 기부릴레이 2016

“우리는 함께가는 친구입니다”

100인 기부릴레이 2016에 참여하는 청소년 이끔이 최하늘, 이영경, 이가윤, 이슬아, 홍석원

100인 기부릴레이
Since 2003

100인 기부릴레이는 4월 1일부터 시작하는 30일간의 기부축제입니다

100인 기부릴레이는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위한 모금캠페인입니다

- 조성된 후원금은 성평등문화확산, 여성인권증진 및 자립지원, 여성친화정책 지원에 쓰입니다.
- 19세 이하 어린이 · 청소년의 후원과 손주 이름의 기부금은 고사리손기금으로 모아져 폭력, 빈곤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시아지역 또래 친구들의 학교 보내기 활동에 쓰입니다.

한국여성재단
KOREA FOUNDATION FOR WOMEN

후원 안내 | **전화** 02-336-6463 | **홈페이지** www.womenfund.or.kr/relay
후원계좌 국민 079801-04-001536 농협 1279-01-000251 예금주: 한국여성재단

ⓒ Vitamin Angels/LA11/Dayka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니베라와 함께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양 결핍 아이들이 생명을 지킬 비타민을 섭취할 수 있었어요!

아이들이 살 수 있도록 기적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